

20세기 핀란드의 사회적 분리와 정치적 통합: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과 ‘정치계획’*

김 인 춘**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핀란드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인 것’에 대응했고 내전 후 민족·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문제, ‘정치계획(political project)’으로서의 민족국가를 검토하고 어떤 이념과 제도, 전략으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핀란드는 20세기 전반의 짧은 기간 동안 독립, 혁명, 내전, 전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극적인 역사적 발전경로를 경험했다. 핀란드의 ‘정치계획’은 첫째, 자본주의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이루고 민족·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둘째,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갈등과 계급분리를 넘어 계급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었다. 20세기 초 이념 및 계급, 민족·언어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에 핀란드의 급진적인 민주주의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완전한 주권 추구하고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내전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속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472).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핀란드 민주주의는 계급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언어분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민족’통합과 ‘핀란드국민’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복지 축소와 재분배 당위성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사회적인 것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핀란드, 사회적인 것, 민주주의, 사회적 분리, 핀란드 내전, 정치계획, 중립

1. 들어가며

2017년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¹⁾ 동시에 계급전쟁(class war)에 의한 혁명이나 내전(The Finnish civil war) 100주년이기도 하다. 핀란드 내전은 1918년 1월 발생했지만 1917년 12월 6일 독립 선언 당시 이미 계급전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²⁾ 20세기 초반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와 근·현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계급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나라였다. 1906년 단원제 의회의 도입과 함께 유럽 최초로 남녀보통선거권이 실시되었고, 1906년 세계 최초의 여성피선거권으로 세계 최초의 여성의원이 탄생했으며, 1917년 유럽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총리가 나왔으며,

1) 핀란드 정부의 100주년 행사(‘Finland’s big year 2017’) 로고는 ‘Together’이며 독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의 역사를 국가적으로 공표했다.

http://suomifinland100.fi/wp-content/uploads/2015/12/Suomi100_tiedote_01122015_ENG.pdf,

<http://suomifinland100.fi/?lang=en>,

<http://suomifinland100.fi/our-common-finland/history/?lang=en> 참고

2) 핀란드 내전은 ‘자유전쟁(Freedom War)’, ‘교우전쟁(Brethren War)’, ‘핀란드혁명(Revolution)’, ‘계급전쟁(Class War)’, ‘적군의 난(Red Rebellion)’ 등으로 불린다.

3개월의 짧은 내전기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인구가 두 개의 계급과 이념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렀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소작농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 개혁주의, 지주와 부르주아 유산계급 중심의 자본주의적 보수주의가 그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와 사회적 평등, 중립주의와 평화의 국가 정체성, 합의제 정치와 계급타협으로 특징되는 핀란드의 선진 민주국가와 매우 상이한 역사라 할 것이다. 핀란드의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역사사회학은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구성의 역사적 과정과 경로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사회적인 것', 즉 노동문제, 빈곤, 계급, 민족·언어적 분리와 사회적 불평등 등 다수 '인민'의 삶의 문제에 국가, 즉 지배정치세력은 어떻게 대응했고, 그 파국적 결과와 파국의 수습과 대응에 관한 것이다. 핀란드는 1905 1917년 러시아혁명의 외부적 영향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 방식의 적대성과 극단성으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 구성의 대(大)파국, 즉 폭력적 혁명과 내전을 겪게 되었다. 핀란드는 내전 직후부터 우파 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에도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노력, 즉 공통의 '정치계획'과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국민국가와 합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토지개혁과 사회개혁, 의회주의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전간기의 경제발전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의 두 차례의 전쟁을 이겨내고 전후 핀란드의 국가 발전과 선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핀란드는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아로부터 각각 식민지배를 받았고, 20세기 초반 독립이라는 완전한 주권국가의 영광과 함께 내전의 비극을 겪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의 전쟁으로 국가적 존망의 위기를 넘었다. 국가는 살아남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분리, 빈곤과 배제의 트라우마가 깊었다. 폭력적 혁명과 내전까지 초래했던 극심한 이념갈등과 계급갈등, 이러한 이념과 계급 문제의 한 요인이기도 했던 스웨덴계와 핀란드 민족간의 민족·언어갈등 등 사회적 분리와 갈등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내전 직후 토지개혁과 의회주의의 '정치계획'으로 이러

한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을 추진하여 계급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비례대표제로 다양한 사회집단 및 계급이 민주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차 대전 후 지속적으로 국가재건과 경제성장, 사회개혁과 사회통합을 추진해왔으며 대외적 주권과 (친소)중립을 지켜왔다. 그 결과 약소국 핀란드는 1980년대 들어 강소국으로 발돋움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핀란드 정치가 어떻게 ‘사회적인 것’에 대응했고 내전 후 민족·언어분리와 계급분리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구성, ‘정치계획(political project)’으로서의 민족(국가)이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어떤 이념과 제도, 전략으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고자 한다.³⁾ 핀란드의 ‘정치계획’은 첫째, 자본주의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중립주의로 대내외적 규범과 안정을, 민족·언어 분리 및 갈등을 극복하여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둘째,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념 갈등과 계급분리를 넘어 계급통합을 이루었다. 중요한 것은 다당제와 합의적 정치를 통해 ‘정치계획’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초반 핀란드가 사회적 분리와 내전에 처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적 분리와 내전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독립 후 ‘정치계획’으로서의 핀란드 민주주의와 중립주의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초 이념 및 계급, 민족·언어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에 핀란드의 급진적인 민주주의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완전한 주권 추구하고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러시아혁명, 독일혁명 등 1917-1923년 유럽의 혁명기와 핀란드 민주주의 문제, 2차 세계대전과 그 후 핀란드의 민주주의 발전을 살펴본다. 민주주의는 언어분리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민족’통합과 ‘핀란드

3) ‘정치계획’, ‘민주주의의 구성’이라는 개념은 각각 조홍식(2014), 홍태영(2017)에서 차용한 것임을 밝힌다.

4) 이 글에서 중립주의는 스위스와 같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중립, 스웨덴과 같이 전략적인 외교노선으로서의 중립, 핀란드의 친소련 중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국민'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요한 지정학적 요소를 갖는 약소국 핀란드가 어떻게 중립주의를 지키고 자국은 물론, 노르딕 지역과 유럽의 평화에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셋째, '정치계획'으로서 사회개혁과 핀란드 복지 국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과 계급갈등 해소를 위해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가 그것이다.

2. 역사적 배경: 1809년 핀란드대공국에서 1906년 의회주의 도입까지

12세기부터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던 핀란드는 1809년 러시아 제국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은 덴마크와 함께 노르딕 지역의 강국으로 오랫동안 식민주의적 지배와 지역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왔다.⁵⁾ 러시아 제국 편입 후 핀란드대공국(Grand Duchy of Finland)으로 자치를 허용 받으면서 기존의 관습과 제도가 대부분 유지되었다.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1세가 1809년 핀란드 뽀르보(Porvoo)에서 핀란드인의 대표로 이루어진 4계급의 신분제 의회(the Diet of Finland)⁶⁾를 소집하여 이들의 충성 약속과 함께 핀란드의 종교, '기본적인' 법률들, 권리와 특권 등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최고행정기관으로 행정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구성된 '행정평의회'(1816년 '핀란드제국원로원'으로 개칭)가 설치되었고 구성원은 주로 핀란드인이었지만 의장은 짜르가 임명한 러시아인으로 핀란드 수도에서 짜르를 대표하는 '핀란드 장관', 즉 총독이었다. 러시아 수도에는 '핀란드대공국 국무비서'

5) 스웨덴은 17-18세기에 유럽에서 뛰어난 전쟁국가, 군사국가였으며, 이에 힘입어 17세기에 스웨덴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Frost, 2000; Thomson, 2011). 덴마크는 1536년부터 1814년까지 연합왕국 형태로 노르웨이를 식민변방으로 지배했고, 스웨덴은 1150년부터 1809년까지 핀란드를 병합하여 직접 통치했다

6) 핀란드는 17세기부터 스웨덴의 신분제 의회에 4계급의 대표를 보낼 수 있었고 이는 핀란드 의회의 기원이 되었다.

<https://finland.fi/life-society/parliamentarism-in-finland/>

가 이끄는 핀란드위원회가 러시아-핀란드 관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박상철, 2004: 366-7).⁷⁾

오랜 기간 스웨덴의 핀란드 직접 통치는 많은 스웨덴인의 핀란드 이주를 가져왔고 루터교의 전파·확산과 함께 행정체계, 신분제의회, 스웨덴어 사용 등 핀란드의 제도와 생활방식은 스웨덴과 매우 유사해졌다. 1800년 시기 핀란드의 다수 인구는 핀란드어를 사용했지만 15%는 스웨덴어를 사용했다(Coleman, 2010: 2). 특히, 관료와 엘리트 전문가 등 소수의 지배계층은 모두 스웨덴어를 사용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민족적으로 스웨덴계의 핀란드인이었다. 스웨덴의 오랜 지배로 스웨덴어는 행정, 교육·과학 등에서 유일 공식 언어였고 이는 별 문제없이 핀란드대공국 성립 이후에도 50여 년간 이어졌다. 핀란드 지배계급은 러시아 제국에 대한 헌신으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크림전쟁(Crimean War, 1853-56년)시기 핀란드 지배계급의 짜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다. 그 후 핀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정책으로 핀란드의 자치권은 확대되었고 핀란드의 신분제 의회⁸⁾는 50여 년 만인 1863년 다시 소집될 수 있었다(Barton, 2006).

핀란드의 신분제 의회가 복위되면서 19세기 후반 들어 핀란드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페노만(Fennomans)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1860년대 들어 핀란드당(The Finnish Party)을 구성하고 핀란드 언어와 문화를 농민계급의 지위에서 국가의 공식 언어와 국가문화(national culture)로 격상시키고자 하면서 언어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⁹⁾ 민족주의 운동이었던 페노만

7) 대북방전쟁(1700-21)에 따른 1721년 뉘스타드(Nystad or Uusikaupunki) 평화조약과 러-스웨덴 전쟁(1741-3)에 따른 1743년 오부(Abo or Turku) 조약에 의해 핀란드 영토의 일부가, 그리고 1808-9년의 러-스웨덴 전쟁에 따른 1809년 프레드릭스함(Fredrikshamn or Hamina) 평화조약에 의해 핀란드 영토 전체가 러시아에 병합되었다(박상철, 2004: 364-5). 그럼에도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의 승전국으로 빈회의(The Wien Congress) 승인 하에 프랑스 동맹이었던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할양받아 강압적으로 병합하여 1814년부터 1905년까지 지배했다(김인춘, 2014).

8) 1869-1906년간 4계급 핀란드의회는 대표는 귀족 201명, 성직자 40명, 부르주아 30-70명(지속적으로 증가함), 농민 70명으로 구성되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Diet_of_Finland

9) 페노만운동 첫 세대 대부분의 모국어는 스웨덴어였고 일부는 핀란드어나 이중언어 사용자였으며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스웨덴식 성을 가졌다. 페노만들은

운동은 핀란드인들의 민족국가 의식을 고취시켰고 스웨덴식의 가족성을 핀란드식으로 개명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스웨덴계의 핀란드 지식인들도 페노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 스베코만(Svecomans)운동이었는데 이들은 스웨덴계의 지위와 스웨덴어를 지키고자 했다(Barton, 2006: 13-15). 신분제 의회는 1869년부터 정기적으로 소집되었고 스웨덴어 대신 핀란드어를 공식적 언어로 하게 되었다. 신분제 의회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 성격과 발전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는데 정치적 통합의 장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인 페노만과 자유주의적 의회 제도를 주장한 스베코만의 갈등이 그것이다(Pekonen, 2017).

페노만과 스베코만의 언어·문화적 갈등은 정치적 분열로 나타났는데 페노만은 러시아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스베코만은 스스로를 스웨덴 정체성과 동일시하게 되었다(Barton, 2006: 14). 스베코만은 핀란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래된, 각각의 언어와 문화를 갖는 '2개의 민족'이 사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핀란드대공국을 지배하는 러시아 제국으로서는 스웨덴 정체성보다 핀란드 정체성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했다. 페노만은 주로 목사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조합주의적(corporativist) 운동이었고, 스베코만은 주로 학계 등 엘리트 계층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지배계급 및 엘리트 계층의 대부분은 스웨덴계 핀란드인 또는 스웨덴어 사용자였으며 따라서 언어갈등은 계급갈등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 문화적으로 페노만운동을 지지했던 스웨덴계 지식인들이나 스웨덴계의 지배엘리트들은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스베코만이기도 했지만 핀란드인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수백년 이상 핀란드에서 살아온 스웨덴계는 핀란드의 지배계층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스웨덴 본토와 가족적 관계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¹⁰⁾ 의회의 정기적 소집과 1870년 대중적인 스웨덴인당(The Swedish People's Party)이 만들어지면서 스베코만운동은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소수의 스웨덴계 엘리트집단이 장악해 온 권력이 의회의 권력으로 대

점차 핀란드어를 배우고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10) https://en.wikipedia.org/wiki/Fennoman_movement

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72년 핀란드의 신분제 의회 대표 선출에서 페노만과 스베코만 양측 모두 다수의 대표를 확보하면서 두 ‘민족’간 대립은 커져갔다. 핀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정책으로 핀란드의 자치권은 확대되었고 1881년에는 핀란드 방어를 위한 독자적 핀란드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페노만운동이 커지면서 구핀란드당(The Old Finnish Party)과 보다 민족주의적인 청년핀란드당(The Young Finnish Party)으로 분리되었다. 19세기 말 핀란드 민족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분리·독립 기운이 나타나게 되자 러시아는 1890년대 들어 핀란드인들의 반대에도 핀란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위한 ‘러시아화(Russific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899년 2월 칙령’은 핀란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핀란드군대를 폐지하고, 핀란드의 행정권과 자치권을 러시아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거부감을 심화시키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었다(Thaden, 1981). 러시아어 교육과 사용을 강화했고 1903년부터는 더 강력한 통치로 핀란드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당시 스웨덴 지배하에 있던 노르웨이의 분리·독립운동, 독일제국의 부상 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도 ‘러시아화’를 압박하게 된 요인이었다.¹¹⁾

그러나 러일전쟁과 1905년 러시아혁명, 그 후 1차 세계대전 발발은 핀란드-러시아 관계는 물론 러시아 제국과 핀란드의 역사도 바꾸었다. 러일전쟁과 1905년 혁명의 결과로 1906년 러시아와 핀란드에 역사적인 의회제와 입헌주의가 도입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1899년 사회주의 정당인 핀란드노동당(1903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이 창당되어 성공적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었다. 1905년 10월 핀란드에서 총파업이 발생했고 사회주의자들과 핀란드의 기존 의회는 러시아에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1906년 10월 기존의 신분제 의회를 대체한 200명의 단원제 의회(the Parliament, Eduskunta)가

11) 이러한 러시아의 압력에 대응하여 핀란드의 자유주의적인 지배세력에서는 소극적 저항, 폭력을 포함한 적극적 행동, 순응 등의 방안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1904년 6월 헬싱키에서 스웨덴어를 쓰는 핀란드 지배계급 출신의 민족주의자 청년에 의해 핀란드 주장관인 보브리코프 총독 암살사건이 발생했다.

도입되었고¹²⁾ 동시에 24세 이상 남녀 보통선거권 도입, 내각에 대한 의회 우위의 의회주의와 함께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면서¹³⁾ 당시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1906년 이후 핀란드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의해, 또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적 계급투쟁과 폭력적 계급투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05-07년 단원제 의회 도입 전후로 핀란드의 우파 지배계층은 대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신분제 의회나 귀족 상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주의세력 및 노동계급,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우파 지배계층의 거부감과 불신을 보여준 것으로 극심한 이념갈등과 계급갈등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다.

거의 모든 핀란드인들이 지지한 분리·독립운동은 20세기 들어 강해졌고 '핀란드는 러시아와는 상이한 독자적인 국가'라는 주장을 펴면서 입법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했다(Barton, 2006: 20-21). 이들은 1905년 노르웨이의 분리·독립, 1905년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핀란드의 분리' 또는 '최대한의 자치권 획득'을 실현하고자 새로 도입된 단원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 1907년 3월 역사적인 민주적 총선이 실시되었고 놀랍게도 좌파의 사회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러시아의 개혁우파 정부에게는 물론 핀란드의 분리·독립을 추구한 핀란드 우파 지배계급에게도 불리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핀-러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1909년 3월 '러시아핀란드위원회'(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5명 핀란드 위원은 핀란드제국원로원 추천)를 구성하였는데 핀란드 위원들(핀란드인)은 핀란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중 제 1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의 대표들로 이루어졌다. 핀란드 위원들은 핀란드의 독자적인 기본법과 헌법을 주장하며 모든 법률은 핀란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핀-러 관계는 단일한 군주가 두 나라에 있는 '동군(同君)연합'이므로 핀란드의 독자적인 국가를 주장했다. 물론 러시아 위원들은 핀란드는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가 스웨덴 군주

12) 단원제 의회를 도입한 '의회법(The Parliament Act of 1906)'은 사실상 핀란드 헌법의 효력을 가졌다. 핀란드는 1906년부터 비례대표제였다.

13) <https://www.eduskunta.fi/FI/sivut/page-not-found.aspx> 여성보통참정권은 핀란드가 유럽에서 처음이었고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두 번째였다.

와 러시아 군주 간 협약에 의해 병합한 지방으로 독자적인 국가가 아닌 러시아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비록 핀란드 좌파에 대한 러시아핀란드위원회의 공통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우파는 핀란드인들의 분리·독립 지지와 핀란드 내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로 인해 핀란드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 러시아 정부는 1910년 3월 핀란드 자치권 박탈과 종속적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핀란드법안(‘핀란드에 관련된, 전국가적 의미를 지닌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의회인 국가 두마(Duma)와 상원적인 국가평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1910년 5월 두마 통과(164찬성, 23반대), 6월 짜르 서명으로 완료되었다(박상철, 2004).

러시아 입헌주의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핀란드 입헌주의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핀란드의 헌정주의자들은 핀-러 관계는 본질적으로 전제군주체에 의한 동군연합이므로 1905년 10월 혁명 후 입헌군주체가 되었으므로 모든 효력이 중지되며 1906년에 도입된 단원제 의회와 1907년 3월 총선에 따라 독자적인 핀란드 정부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전한 주권 국가라 할 수 없었던 핀란드의 의회는 짜르와 러시아제국의 핀란드국무비서 대신에 의해 지배되었고, 핀란드의 입법은 핀란드의 분리를 막고자 1910년 6월 도입된 ‘핀란드법’에 따라 1910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의회와 국가평의회 동의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박상철, 2004: 376-377). 1905년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했지만 이러한 헌정 문제는 러시아정부와 ‘러시아화’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거부감을 키우게 되었다(Kujala, 2013).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발틱해 공격으로 러시아는 핀란드를 사수해야 했지만 반(反)러시아의 핀란드인들로 인해 러시아군의 핀란드 방어는 힘들어졌다. 핀란드-러시아 체제는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결국 전쟁과 독일의 군사력에 의해 1917년 3월(러시아력 2월혁명) 러시아 군주체가 붕괴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핀란드 독립의 궁극적 요인(Barton 2006)이 되었지만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핀란드 내부의 사회적 분리와 대립, 정치적 갈등과 적대로 핀란드에서 폭력적 혁명과 내전이 초래되었다.

3.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민주주의

3.1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

핀란드의 폭력적 혁명과 내전은 외부적 요인도 중요했지만 당시 핀란드 내부의 사회적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해결의 방식, 즉 민주주의의 문제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었다.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위기, '사회적 삶의 위기' 시대에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사회'와 사회적 것을 강조하는 현실은 분명 이질적이고도 문제적이다(조문영·이승철, 2017; 백승욱, 2015; 김성운, 2017). 사회의 보호와 사회적 것이 우위에 있었던 전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시대와는 다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우위에 대한 공격 또는 역풍으로 '자본의 반격'(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2006)이 나타나면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었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중심이었던 서유럽 또한 탈냉전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으로 전환되었다(김인춘, 2015). 기술발전 및 경제성장과는 별개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주기적 경제·금융위기,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이주와 노동이동 등은 오늘날 사회적 위기와 함께 극우·포퓰리즘 등 정치적 격변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문제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인해 드러난 현상은 다르지만 사회적 것의 본질적 의미와 성격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사회의 위기, 이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한 지금의 현실은 1세기 전의 상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전반,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 것의 병존은 일상적인 정치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사회적 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자본의 착취와 노동의 빈곤이었으며 이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이념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를 포함하여 20세기 전반, 즉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서구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지배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현실 속에서 대중민주주의의 급격한

부상과 민주주의의 대표성 위기가 교차하던 시기였다(오경환, 2014). 특히 러시아, 독일을 비롯한 후발산업화 국가들에서 대중민주주의의 부상, 민족주의적 집단적 열망, 전체주의적 사회적 동원, 다양한 노동·사회운동 등은 사회적인 것의 정치화(‘정치적인 것’)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1914-1923년 유럽의 전쟁과 혁명기로 귀결되었다(Eley, 2002: 123, 152). 이러한 과정에서 상이한 역사적 발전경로가 나타났고 핀란드는 20세기 전반의 짧은 기간 동안 독립, 혁명, 내전, 전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극적인 역사적 발전경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것의 필요성(폴라니, 뒤르켐)이나 불가피성(마르크스)으로 무장한 이론과 주장은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적 과정과 발전을 설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홍태영, 2017). 사회 위기나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데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20세기 초나 21세기 초의 상황은 유사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복지 축소와 재분배 당위성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사회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핀란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시기, 매우 극적인 역사적 경로를 경험했는데 분리·독립의 와중에 20세기 초 대중민주주의의 부상과 대표성의 위기로 폭력적 계급투쟁과 내전이 발생했다. 1918년 내전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실패, 즉 사회적인 것의 정치적 구성의 실패와 공동된 ‘정치계획(political project)’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핀란드 사례는 독립 100주년을 맞은 비교적 젊은 주권국가이자 선진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20세기 초 약소국으로서 심각한 내·외부적 제약조건 하에서 민주적·폭력적 계급투쟁과 계급타협,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의 실패와 성공, 민주주의의 위기와 발전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물론 한국에게도 함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오랜(半(반))식민지배를 겪은 신생 독립국가로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정치·사회적 분리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3.2 핀란드의 사회적 분리: 계급, 이념, 민족·언어

사회적인 것의 핵심은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핀란드의 혁명과 내전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핀란드 계급구조는 19세기 들어 오랜 신분제가 약화되고 산업화로 부르주아 및 노동계급이 형성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들어 러시아 지배 하의 핀란드대공국에서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발전, 노동계급의 성장과 노동문제의 등장,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1809년 러시아 제국 편입 직후부터 핀란드에 러시아의 저가곡물이 유입되면서 핀란드 농촌은 자작농이 쇠퇴하고 지주 중심의 농업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농촌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만들어졌고 이들의 일부는 도시노동자가 되었다(Kujala, 2013; Jørgensen, 2006). 핀란드의 급속한 산업화는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목재, 펄프, 제지의 대량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부르주아계급과 노동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1900년 전후로 소작농과 노동자들은 계급분리와 계급격차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의식하게 되었고 토지개혁과 계급적대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동원되었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전의 원인이었다(Haapala, 2014: 30-33).

핀란드 인구는 러시아 제국 인구의 2%에 불과했는데 소수의 핀란드인들은 러시아 제국의 군장교와 관료로 진출했다. 19세기 후반 들어 다수의 핀란드인들이 기술자와 근로자로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1870년 전후 제국의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에는 핀란드어 사용 인구가 헬싱키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러시아와 핀란드 간 노동이동과 무역이 활발했다(Barton, 2006). 핀란드 내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인프라 건설과 자본주의적 기업 활동이 보장되었다. 그 결과 개인적, 계급적 이해관계가 중요해졌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역사적으로 핀란드의 산림은 농민과 국가가 소유했는데 목재산업의 발전은 자본의 농업부문으로의 이동과 함께 노동력과 원료를 제공한 농민과 지주에게 부의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 핀란드의 목재관련 산업은 이미 17, 18세기에 유럽의 조선업 및 건설

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해왔는데 19세기 들어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로 목재시장이 크게 확대되었고 핀란드는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시장에서 3위의 목재 수출국이 되었다. 또한 상당량의 펄프와 제지가 러시아로 갔는데 1차 세계대전까지 제지제품의 80%가 러시아로 가면서 러시아 제국 제지시장의 30%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한다(Michelsen and Kuisma, 1992; Jensen-Eriksen, 2015).

19세기 후반 핀란드의 1세대 사업가들은 모두 스웨덴계 출신들로 이들은 러시아 지배 하의 핀란드에서 정치적, 경제적 파워를 갖는 스웨덴계 엘리트 집단을 만들었다(Michelsen and Kuisma, 1992: 350). 한편, 짜르 체제에 부정적이었던 러시아 자본가 계급은 1905년 혁명 후 ‘새로운 국가’의 우파 주도의 개혁세력과 연대했고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수요로 자본을 축적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부르주아계급은 몰락했고((Lockwood, 2009), 1차 세계대전 1917년 혁명과 내전으로 러시아 시장이 붕괴되면서 핀란드 제지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1917년 말 러시아 혁명세력의 곡물수출 금지로 핀란드는 식량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는데 당시 핵심 산업이었던 임업 노동자들은 실업과 영양실조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Michelsen and Kuisma, 1992).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899년 설립 직후부터 다수의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었고 농촌프롤레타리아트와 노동계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토지개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게 되었다.¹⁴⁾ 사회적인 것, 즉 계급이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정치적인 형태와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핀란드에는 오랜 스웨덴 지배의 유산으로 스웨덴계, 스웨덴어의 민족·언어의 사회적 분리 현상이 있었다. 스웨덴 지배 하의 핀란드에서 스웨덴어 사용 인구는 핀란드 서부 및 남부 해안지역과 헬싱키 지역에 대부분 거주했는데 이들은 갈수록 스웨덴 본토와 접촉이 단절되어 핀란드를 모국으로

14) 핀란드에서 토지개혁은 1880년대부터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토지재분배에 대한 루머에서 그 근원을 찾기도 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1918년, 1922년 핀란드 토지개혁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토지개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uodenjoki, 2015).

생각하게 되었으며 원래의 핀란드인들과는 언어로만 구분될 뿐이었다. 이들의 다수는 농업 및 어업에 종사했지만 핀란드의 지배 엘리트계급은 스웨덴계의 스웨덴어 사용자들이었다. 스웨덴 지배 시기에는 물론 19세기 중반까지도 언어 관련 사회적 문제는 없었다. 러시아 지배 하에서도 귀족, 상업, 법원, 교육 종사자들은 스웨덴어를 사용했고 행정도 모두 스웨덴어로 이루어졌다. 전문직 중 종교인들만 핀란드어를 사용했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핀란드인들은 엘리트가 되기 어려웠지만 중산층 자녀들은 고등교육과 함께 스웨덴어를 배워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특히 독립 후 핀란드의 새로운 엘리트집단이 되었다(Dutton, 2016; Coleman 2010). 19세기 후반부터 핀란드 민족주의의 등장, 계급구조의 변화 등으로 언어문제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 운동으로 핀란드어가 강조되었는데 핀란드 민족주의 주창자들 중 많은 사람은 스웨덴어 사용자들이었다. 핀란드어의 공용화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엘리트층이 형성되었지만 1900년 인구의 13%인 스웨덴어 사용자는 여전히 부유하거나 엘리트들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중언어 정책이 시행되었고 1919년 핀란드 헌법은 두 언어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지만 정치 및 행정, 문화, 교육 등에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언어갈등은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¹⁵⁾

1900년을 전후로 계급갈등과 언어갈등은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발전되었는데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노동계급과 무산계급, 진보주의자들은 개혁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창한 반면, 부르주아와 지배계급은 보수주의와 자본주의를 지지했다. 언어분리 뿐 아니라 계급 및 이념 분리로 구핀란드당, 청년핀란드당, 스웨덴인당, 사회민주당, 농민당, 기독교노동당 등은 각각 지지세력을 동원했고 정치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사회개혁이 필요했지만

15) 1917년 당시 핀란드 인구의 15% 정도가 스웨덴계 출신이었다. 현재 전체 인구의 5.4%가 스웨덴어를 사용하고 있다(Statistics Finland, 2012). 1940년 겨울전쟁 후 핀란드 동부에서 나오게 된 42만 명의 핀란드어 사용자 카렐리안 난민도 또 다른 언어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스웨덴어 중심의 행정기관들, 취업에서 스웨덴어 지식이 요구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대중민주주의의 도래와 정치·이념 갈등은 개혁 대신 극심한 정치적 경쟁과 대립을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위계 사회였던 핀란드에서 대학, 교회, 부르주아, 관료 및 엘리트 등 지배계급은 개혁을 거부하면서 하층계급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Alapuro, 1988; Kirby, 1979). 1906년 200명 의원의 단원제 의회와 남녀보통선거권 도입, 1907년 3월 총선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리와 갈등은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표출되었고 민주적 계급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07년 총선에서 좌파의 사회민주당은 37.03%의 득표율과 80석의 제1당이 되었고, 스웨덴어를 증시하는 보수적인 스웨덴인당은 12.6%의 득표율과 24석으로 제4당이 되는 등 총 6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다. ‘사회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전환되었고,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반(半)식민지적 상황에서 핀란드 민주주의의 운명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4.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의 파국: 1918년 내전 또는 혁명

4.1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 계급투쟁’

핀란드는 1917-1923년 유럽의 혁명기에 폭력적 내전을 경험한 유일한 노르딕 국가였다.¹⁶⁾ 1906년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룬 핀란드에서는 1906년부터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적 계급투쟁(democratic class struggle)’(Korpi, 1983)이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페노만운동과 스베코만운동 당시 만들어진 핀란드당¹⁷⁾과 스웨덴인당¹⁸⁾ 외에 1894년 청년핀란드당

16) 노르웨이 노동당과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노르웨이 노동당은 코민테른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노동당은 코민테른을 탈퇴했으나 핀란드 사회민주당 좌파는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했다. 반면, 덴마크 사회민주당과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볼셰비키 혁명과 거리를 두었다.

17)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ty

18) 스웨덴인당은 스베코만 운동 당시 만들어졌던 신분제의회(the Diet of

(Young Finnish Party), 1899년 사회민주당(노동당), 1906년 창당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농민당(The Agrarian League)' 등이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었고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899년 창당 시기부터 거대한 노동계급 정당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운동 및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의회주의를 지지하면서 핀란드의 민주주의 유산을 만들었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905년 러시아 혁명, 1905년 10월 핀란드 총파업을 거치며 급진화되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200명의 핀란드 의회 구성을 위한 첫 총선이 1907년 3월 실시되었고 선거의 주요 쟁점은 사회개혁 및 러시아와의 관계였다. 70.7% 투표율의 선거 결과는 신분제의회에서 대표권이 없었던 노동자 및 소작농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승리로 제1당이 되었고 19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표 1> 1907년 3월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	의석수, 명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37.03	80
핀란드당 (Finnish Party)	27.34	59
청년핀란드당 (Young Finnish Party)	13.65	26
스웨덴인당 (Swedish People's Party)	12.60	24
농민당 (Agrarian League)	5.75	9
기독교노동자연합 (Christian Workers' Union)	1.55	2
기타 (Others)	2.08	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liamentary_election,_1907

이러한 선거 결과는 핀란드 우파는 물론 당시 러시아의 우파개혁주의 정부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905년 혁명으로 러시아에 의회(두마)와 기본권이 도입되고 권력은 내각으로 이동했지만 체제 변혁기의 보수적 개혁은

Finland)내 '스웨덴당 (The Swedish Party, 1870-1906)'을 전신으로 하는 보수적인 엘리트 정당이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Swedish_People%27s_Party_of_Finland 스웨덴어 사용 농촌인구와 스웨덴계 엘리트간의 연대감은 스베코만운동의 오랜 유산이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Svecomans>

‘구러시아’와 ‘새로운 국가’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두마와 기본권은 약화되었고 두마 해산과 함께 왕당파와 우파의 정치적 공세도 커졌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대(大)러시아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핀란드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는 핀-러관계, 1910년 핀란드법, 1차 세계대전 등 여러 이유로 1908-1917년 시기 핀란드 의회를 지속적으로 해산하고 1908, 1909, 1910, 1911, 1913년 재선거를 실시했다. 다시 실시된 1908 총선(38.40% 지지율, 83석), 1909 총선(39.89%, 84석) 1910 총선(40.04%, 86석), 1911 총선(40.03%, 86석), 1913년 8월 총선(43.11%, 90석) 모두에서 사회민주당은 제1당을 유지했지만 러시아는 물론 핀란드 우파의 방해로 자신들의 개혁입법을 도입할 수 없었다. 선거마다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아졌고, 1913년 총선에서 43.11%의 지지율은 노동자와 소작농 계급의 개혁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전 실시된 유럽 각국의 총선에서 사회주의 계열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었지만²⁰⁾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이유로 1914년 핀란드 의회 해산을 결정했다. 계속되는 의회 해산으로 사회민주당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민주적 의회에 대한 사회주의 지지자들의 높은 기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실제로 투표율은 70.7%(1907년)에서 65.0%(1908), 65.3%(1909), 60.1%(1910), 59.8%(1911), 51.1%(1913)로 지속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1918년 폭력적 혁명과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 6월 다시 총선이 실시되었다. 열악한 근로조건 의 노동자와 착취당하는 소작농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사회민주당은 빈곤층과 소외층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투표율은 55.5%로 여전히 낮았지만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사회민주당은 47.29%의 득표율과 103석으로 의회 내 첫 단독 다수당이 되었다. 민주적 계급투쟁에서 사회민주당의 승리가자

19) ‘체제 변혁기의 보수적 개혁’을 추진하던 스톨리핀 수상(1906-1911년 재임, 1911년 암살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세졌다(박상철 2004, 338-339).

20)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은 1914년 9월 총선에서 36.5%를 획득한 스웨덴 사회민주당노동당이고 세 번째는 독일사회민주당으로 1912년 총선에서 34.8%를 얻었다(Eley, 2002: 66).

사실상 '무혈혁명'이었지만 핀란드 의회민주주의의 경이로운 성과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에 직면해야 했다.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황제가 지위를 포기하면서 핀란드대공국의 국가수반이 권위되는 헌정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보호)를 받는 핀란드대공국의 최고 권력인 대공은 러시아 황제였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우파 상원의원들 모두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주장했지만 이들의 입헌주의는 상이했다. 계속된 의회 해산으로 1917년 2월 러시아혁명 때까지 핀란드 의회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지만 1916년 총선에서 103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민주의자들은 의회주의자들(parliamentarians)로 핀란드에 대한 완전한 의사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 토코이(Oskari Tokoi, 1873-1963)가 핀란드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1917년 3월 26일 총리(원로원 의장)가 되었다(1917년 9월 8일까지). 러시아 임시정부와 핀란드 간 협상이 진행되었고, 7월 초 핀란드의 사민주의자들은 러시아 멘세비키 및 사회혁명주의자들을 설득하여 핀란드 의회가 의회 소집과 해산의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했지만 핀-러 관계의 최종적 결정은 러시아인민위원회에 달려있음도 확인했다. 그러나 단독 과반의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핀란드 의회는 농민당 일부 및 무소속 정치인들의 협조로 1917년 7월 18일 '최고권한법(the Power Act, valtalaki)을 채택하여 외교 및 군사권만 러시아임시정부가 갖고 핀란드 의회가 모든 대내적 권한을 갖는 핀란드의 준독립을 선언했다(Hodgson, 1967: 28; Upton, 1980). 헌정위기는 기존의 핀란드 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 핀란드 사민주의자들, 그리고 독립의 전망이 보이면서 과감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임시정부는 '권한법'을 거부하고 핀란드 의회를 해산했다. 핀란드 사회주의 좌파의 급진적인 주장과 절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핀란드 우파와 러시아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핀란드 의회를 해산했던 것이다. 결국, 핀란드 좌·우파간 적대로 인해 의회주의로 핀란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은 8시간 노동, 토지분배와 소작농 해방 등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고 부르주아 정당들은 핀란드의 완전한 독립 후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

다.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하여 새로운 총선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했고, ‘민주적 계급투쟁’에 진력했으며, 1916년 6월 절대다수당이 된 사회민주당은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으로 더욱 급진화되었고 노동자 및 소작농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 좌파의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에 당내 온건 사회주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1917년 10월 1-2일 다시 총선이 실시되어(투표율 69.2%) 사회민주당 의석은 103석에서 92석으로 줄었다. 러시아 임시정부와 핀란드 보수파 및 부르주아 세력이 우파 의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은 거쳤고 1917년의 의회 해산과 재선거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적대적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의회 내 좌우파의 대립과 적대는 폭력적 계급투쟁을 초래했고 10월 볼셰비키 혁명 후 핀란드 사회주의 급진세력은 총파업과 함께 혁명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Hodgson, 1967; Tepora and Roselius, 2014). 10월 1-2일 총선과 10월 24일 볼셰비키 혁명 후 핀란드 의회는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사문화된 핀란드 헌법, 즉 군주 공위시 과도기적으로 권한을 갖는 3인 섭정(regency)을 선출하도록 한 스웨덴 지배 시절의 ‘1772년 정부구성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of 1772)’에 기반하여 섭정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사회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급진적 개혁을 요구한 총파업으로 선출할 수 없었다. 핀란드 사민주의자들은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와 연대하여 8시간 노동, 소작농 해방 등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11월 2일 핀란드 의회는 완전한 주권과 공화제를 선포했고 기존의 정부구성법은 무효화되었다. 의회는 그들이 임명한 우파 정부의 스빈흐부드 총리((Pehr Evind Svinhufvud, 1917. 11. 27- 1918. 5. 27 재임)가 만든 독립선언서가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자 12월 6일 독립을 승인했다.²¹⁾ 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을 기회로 핀란드는 독립하게 되었고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는 12월 18일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했다.²²⁾ 핀란드인들은 독립을 헌법과 주권

21)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Declaration_of_Independence

22)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는 핀란드 사회주의 좌파를 지지하고 있었다. 한편,

문제로 보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힘겹게 치렀던 러시아에게는 핀란드에 대한 지배권이 독일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로부터의 핀란드 독립은 독일의 지원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핀란드 우파와 독일제국과의 연대, 핀란드 사회주의자들과 볼셰비키의 연대는 핀란드 내전의 또 하나의 축이 되었다. 독립 후 농민당의 연정 제안을 거부하고 혁명적 방식으로 총파업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급진적 사회주의자들과 좌우파간 극단적인 권력투쟁으로 핀란드의 민주주의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유일한 최고 권한인 스빈호부드 총리 등 우파는 농민당과 함께 군사력을 조직하고 향후 계획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네르하임 등 군 사령관들도 이러한 계획에 참여했는데 당시 적위군은 3만, 백위군은 2만이었다고 한다(Tepora and Roselius, 2014).

<표 2> 1916년 6월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	의석수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47.29	103
핀란드당 (Finnish Party)	17.49	33
청년핀란드당 (Young Finnish Party)	12.50	23
스웨덴인당 (Swedish People's Party)	11.76	21
농민당 (Agrarian League)	9.00	19
기독교노동자연합 (Christian Workers' Union)	1.84	1
기타 (Others)	0.11	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liamentary_election,_1916

핀란드 독립은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을 앞두고 핀란드에 대한 독일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1917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독일간의 협상에서 독일이 요구한 조건의 하나였다.

<표 3> 1917년 총선 결과 (10월 1-2일)

정당	득표율 %	의석수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44.79%	92
핀란드당-청년핀란드당-인민당 (Finnish Party-Young Finnish Party-People's Party)	30.17	61
스웨덴인당 (Swedish People's Party)	10.90	21
농민당 (Agrarian League)	12.38	26
기독교노동자연합 (Christian Workers' Union)	1.56	0
기타 (Others)	0.20	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liamentary_election,_1917

4.2 폭력적 계급투쟁과 계급전쟁으로서의 내전

급진 사회주의세력에 의한 계급투쟁과 좌우파간의 권력투쟁은 핀란드를 폭력적 혁명과 내전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핀란드 혁명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유사한 방식으로, 1918년 1월 26일 밤 사회민주당 내 급진파의 무장 행동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27일 사회주의 좌파세력인 적위군은 수도인 헬싱키를 점령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혁명을 선언했다. 자발적인 적위군은 핀란드인 다수의 사회개혁 열망을 이상주의적 ‘계급전쟁’으로 만들고 사회민주당의 혁명지도부는 폭력적인 계급전쟁의 현장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우파 정부는 28일 러시아군의 무장해제를 단행했고,²³⁾ 민주적인 절차로 수립된 정부가 적위군에 의해 전복되자 우파 백위군은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는 적위군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폭력적 사회주의자들과 핀란드 내 볼셰비키를 몰아내고자 했다. 당시 백위군은 약 7만 명, 적위군은 약 9만 명이 있었다. 27일 당일부터 양측의 거리처형이 시작되었고 백위군은 1918년 4월 5일 혁명적 산업도시인 탬페레를 장악하면서 다수의 노동자 적위군을 학살하는 등 잔인한 내전이 5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내전의 총 희생자는 38,000여 명(러시아인 및 기타 외국인 2,000여명 포함)으로 당시 핀란드 인구 3백20만

23) 러시아 제국은 무너졌지만 1917년 여름까지 10만 여명의 러시아 군인이 핀란드에 주둔해 있었고 이들의 다수는 혁명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의 1%를 훨씬 넘었다.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인 적위군의 희생자 수는 28,000여명이었고 8만여 명의 노동자 및 사회주의자들이 강제수용소에 갇혔다.²⁴⁾

1917년 2월 러시아혁명 후 핀란드 주둔 러시아 경찰의 해체와 미약한 핀란드 경찰력 문제, 독립으로 핀란드 내의 권력공백은 이미 의회 내 좌우파의 극단적인 적대로 폭력적인 계급·이념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내전 전 온건 사회주의자도 참여한 핀란드의 우파 정부는 토지개혁을 제외한 8시간 노동 등 사회민주당이 요구한 다수의 개혁을 도입했다. 그러나 레닌의 핀란드 혁명 지원과 11월 핀란드 총파업으로 이미 노동자 적위군과 우파 시민군(백위군)간 충돌이 나타났고, 12월 6일 독립 후 핀란드의 권력투쟁과 적위대와 백위대간 무장충돌은 격화되었다. 사회주의 급진파가 정부를 장악하려 하자 우파 정부는 백위군을 정부군으로 선언하고 만네르하임(Carl Gustaf Emil Mannerheim, 1867 - 1951)장군을 정부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었다(Tepora and Roselius, 2014; Kirby, 1979). 20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이었던 계급전쟁에서 보수파와 부르주아 세력인 백위군은 독일제국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승리했다. 볼셰비키 혁명 노선은 핀란드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맞지 않았고 보통의 핀란드인들은 핀란드 좌파를 러시아 볼셰비키로 동일시했고 러시아 볼셰비키와 연계한 이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역사·문화적으로 핀란드에서 '러시아'에 속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내전 중 핀란드 좌파 지도부 다수의 해외 망명은 일반 적위군을 크게 실망시켰다.

핀란드의 독립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승리한 백위군은 러시아, 특히 볼셰비키를 주적으로 보았다. 핀란드 내전은 핀란드의 사회·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볼셰비키 이념에 기반한 계급전쟁이었고 혁명이었다(Upton 1980; Maude 2010). 1918년 5월 16일 핀란드 내전은 끝났지만 헬싱키는 우파의 승리 이전 4월에 독일에 점령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난관에 처한 러시아 볼셰비키는 핀란드의 혁명을 계속 지원하기보다 1918년 3월 3일 독일과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러시아군을 핀란드

24) https://encyclopedia.1914-1918-online.net/article/finnish_civil_war_1918

에서 철수시켰다. 백위군의 바사(Vasa) 임시정부는 1918년 3월 독일과 평화 협정을 맺고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에 예속되었으나 독일제국의 1차 세계대전 패배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²⁵⁾ 내전 직후 1918년 5월 의회에 의한 정치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임시 국가수반이 임명되었고 (Pehr Evind Svinhufvud, 1918.5.18-1918.12.12; Carl Gustaf Emil Mannerheim, 1918.12.12.-1919.7.27 재임),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받았으며, 러시아 내전에 거리를 두었다. 다수의 핀란드 국민들은 소작농 해방과 토지분배 등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약속한 정당들 편이었다(Zetterberg et al 2003). 독일의 패망으로 러시아는 물론 독일로부터도 독립한 핀란드는 입헌 군주제 지지자들의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 요구와 공화제 지지자들(사회민주당, 농민당, 진보주의자들)간의 타협으로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의 공화국으로 타협하여 헌법(The Constitution Act of 1919)을 제정했다.

5.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 : 내전 후 ‘정치계획’과 사회통합

5.1 ‘정치계획’과 사회통합: 사회적 국민국가의 등장과 민주주의

내전 직후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적 분리와 분열을 극복할 ‘정치계획’(조흥식, 2014)이 시작되었다. 공통의 정치계획은 계급, 민족·언어의 사회적 분리를 통합하여 하나의 ‘민족’ 또는 ‘국민’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핀란드의 ‘국가만들기’와 ‘독립지키기’이기도 했다. 토지개혁과 의회주의가

25) 핀란드 내전 당시 스웨덴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립을 견지했으나 사실상 백위군을 지원했다. 1918년 3월 3일 독일제국-소비에트 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독일제국이 핀란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만네르하임을 포함한 우파(국민연합당, 스웨덴인당)의 군주제 지지세력은 1918년 10월 독일 왕자(Prince Frederick Charles of Hesse)을 왕으로 선출했지만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그는 곧바로 12월 왕위를 포기했다.

그 핵심이 되었다. 내전으로 유럽지역에서 소외되고 스스로 큰 상처를 입은 핀란드는 보수 민족주의 세력의 승리에도 국가적 통합을 위해 내전 직후부터 많은 개혁을 실시했다. 내전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분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시 국가수반과 우파 정부는 국가적 통합을 최우선하여 1918년 가을부터 좌파 사면, 소작농과 농촌프로레타리아트를 위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이러한 통합 노력은 성공적이었고 이념갈등이 완화되면서 정치적 긴장과 대립도 크게 약화되었다.

의회 내 좌·우파의 타협과 민주적인 정치질서가 유지되면서 내전 후 첫 총선이 1919년 3월 실시되었다. 내전의 트라우마가 깊었던 1919년 총선에서 우파와 중도파는 내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네르하임을 포함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보통선거권이라는 민주주의 제도에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기도 했다. 투표율(67.1%)은 비교적 높았고 사회민주당이 38.0%의 지지율로 제1당을 지켰다. 내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좌파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다수 핀란드 '인민(the people)'의 희망이었고 노동계급 및 소작농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또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중도적인 농민당이 제2당이 되었고, 1918년 창당된 신생정당인 우파의 국민연합당(The National Coalition Party)이 제3당이 되었고, 또 다른 신생정당인 중도개혁적인 진보당(The National Progressive Party)이 그 뒤를 이었다. 농민당은 백위군파였으나 내전 후 스웨덴어사용 농민세력을 포함한 인민을 대변하는 중도적인 정당이 되었다. 1919년 총선 이전 핀란드당은 해체되어 농민당과 국민연합당으로 흡수되었고 진보당은 청년핀란드당원(Young Finns) 주도로 결성되었다(Rintala, 1969: 72-74).

<표 4> 1919년 3월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 %	의석수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38.0	80
농민당 (Agrarian League)	19.7	42
국민연합당 (National Coalition Party)	15.7	28
진보당 (National Progressive Party)	12.8	26
스웨덴인당 (Swedish People's Party)	12.1	22
기독교노동자연합 (Christian Workers' Union)	1.5	2
기타 (Others)	0.1	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liamentary_election

1919년 7월에는 의회가 선출하는 초대 대통령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²⁶⁾ 진보당 후보인 카를로 유호 스톨베리(Kaarlo Juho Ståhlberg)가 선출되었는데 그는 온건 자유주의의 개혁적 중도 정치인으로 노동자들과 빈곤층의 물질적 복지 증진을 약속했다. 스웨덴어 사용자로 사회민주당과 농민당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스톨베리 초대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핀란드 정치의 특징인 ‘중도주의(Centrism)’의 기원이 됐다. 그는 핀란드 공화국을 약속했고 정치적 위기 시 중재자로서 강력한 대통령을 갖는 의회주의를 약속했다. 우파인 국민연합당과 스웨덴인당은 민주공화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소극적이었던 만네르하임 후보를 지지했다. 원내 제1당, 제2당, 제3당 후보도 아닌, 내전에서 승리한 우파의 지도자 만네르하임 후보(무소속)도 아닌 중도개혁적인 신생의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만큼 기존의 정파적 분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간 정치권력의 분점으로 일방적 독주를 막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타협의 정치와 중도주의가 실현되면서 핀란드의 준대통령제에 기반 한 민주공화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민족통합과 계

26) 대통령 직선제는 1994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스웨덴인당의 여성 후보가 2위를 차지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Pertti Pesonen(1994) “The First Direct Election of Finland's President”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Bind 17 (New Series). 대통령 임기 6년, 의원 임기 4년.

급통합 등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대 대통령을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은 개혁을 통해 핀란드의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을 주장했다. 내전 이후 핀란드 사회는 여전히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레크리에이션활동, 사회단체, 교육 및 문화 등에서 계급적으로, 언어적으로 배타적으로 활동했다(Blom et. al., 1992; Dutton et. al., 2016). 1918년, 1922년 대규모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자영농이 크게 증가했고(Jørgensen, 2006), 1921년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건설 사업,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으로 인민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국민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표 5> 1919년 7월 대통령 선거 결과 (의회간접선거)

후보	득표수	득표율	소속정당
카를로 유호 스텔베리 (Kaarlo Juho Ståhlberg)	143	71.5	진보당 (National Progressive Party)
칼 구스타프 만네르하임 (Carl Gustaf Emil Mannerheim)	50	25.0	무소속 (Independent)
라우리 크리스티안 렐란데르 (Lauri Kristian Relander)	1	0.5	농민당 (Agrarian League)
베이너 탄네르 (Väinö Tanner)	1	0.5	사회민주당 (Social Democratic Party)
무효표 (Invalid/blank votes)	2	1.0	
불참 (Absent)	3	1.5	
총계 (Total)	200	100%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innish_parliamentary_election

5.2 ‘정치계획’과 민족통합 - 제도적 민주주의와 이중언어정책

내전 후 핀란드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다당제와 준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했다. 내전 직후부터 비례대표제에 의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정치적 안정과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통령 선출은 국가

적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적 토대가 되었다. 강력한 대통령 권한과 의회민주주의는 정치적 중도주의와 타협의 정치와 함께 생산적인 상호견제와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핀란드의 준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그 안정성과 효율성이 인정되어 온 것도(강신구, 2016) 이 때문이다. 핀란드는 1906년 의회민주주의의 도입 때부터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데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여 연정 등 정치적 타협과 안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로 핀란드는 이념적, 계급적, 언어적 분리가 민주적으로 대표되어 왔다. 스웨덴인당은 1870년 스웨덴어와 스웨덴계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자유주의 이념은 물론 스웨덴어를 정치적으로 대표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연정에도 참여해 왔다. 스웨덴인당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지지를 얻고 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평등 가치, 소수자 및 농어민 권익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좌파 정당의 강한 영향력과 중도당(과거 농민당)의 강세로 핀란드 사회민주당은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정을 구성해 왔다. 역사적으로 핀란드 정치는 농민주의(Agrarianism)와 중도주의(Centrism)가 중요했는데 대부분의 정당이 중도적 노선까지 포괄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대표하며 중앙권력의 분권화를 지지하는 중도당은 1917년 이후 핀란드의 지배정당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핀란드의 국가정체성을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김인춘, 2016b).²⁷⁾ 2000년대 들어 핀란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해 왔다(Raunio, 2012).²⁸⁾

27) 중도당은 1920년대에 사회민주당의 라이벌 정당으로 부상했으며 중도당 소속의 첫 총리였던 Kyösti Kallio는 1922-1937년간 총리를 역임했고, 케코넨(Urho Kekkonen)은 1956년부터 1982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중도당은 4대 정당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중도당이란 명칭은 1965년도에 채택되었다. 중도당은 중도주의와 진보주의라는 정치적 성격과 함께 역사적으로 아동수당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모델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8) 200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총리 및 각료 임명권 및 국회 해산권을 제한하였으며, 2012년 헌법 개정으로 EU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해 대통령과 내각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회가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총리와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핀란드 의회는 15개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http://oikeusministerio.fi/en/constitution-of-finland>

핀란드의 언어문제와 민족통합은 올란드(Åland)섬 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핀란드의 계급갈등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했던 민족·언어분리 문제는 핀란드 독립과 함께 나타난 올란드 섬 위기로 대외적으로 표출되었다.²⁹⁾ 핀란드의 두 개의 '민족' 문제는 언어분리와 언어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핀란드 역사와 정치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분리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핀란드국민과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핀란드국민이 그것이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올란드 섬 갈등은 원래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스웨덴계 핀란드인의 '민족'문제였다. 1917년 핀란드 독립이 이루어지자 스웨덴계가 90%가 넘는 올란드 섬 주민은 스웨덴어로의 귀속을 요구하면서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올란드는 언어는 물론 제도와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스웨덴이었지만 독립을 전후로 핀란드 민족주의와 함께 반스웨덴 정서가 강해졌고 핀란드 정부가 올란드 섬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스웨덴도 내부적으로 정치·사회적 혼란 상태였고 더구나 핀란드 내전으로 인해 스웨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³⁰⁾ 이에 1920년 3월 최초의 사회민주당 출신의 브란팅(Hjalmar Branting)총리는 국제연맹에 의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 1921년 6월 국제연맹 이사회(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는 올란드에 대한 핀란드의 주권 인정, 올란드의 자치권과 스웨덴 정체성 보장, 올란드 섬의 비무장과 중립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했다(Barros, 1968; Hannikainen and Horn, 1997).³¹⁾ 올란드 주민들은 국제연맹에서 스웨덴의 소극적 태도와 올란드의 비무장 지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스웨덴에 실망하게 되면서 스웨덴 귀속감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결과

29) https://en.wikipedia.org/wiki/Finland%27s_language_strife

30) 스웨덴 우파세력은 핀란드 내 스웨덴계와 핀란드 우파를 소극적으로 지원했지만 러시아혁명에 거리를 둔 중도좌파의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볼셰비키 세력과 연계된 핀란드의 적위군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31) 핀란드 의회는 1920년 5월 The Act on the Autonomy of Åland로 올란드에 광범위한 문화적, 정치적 자율성을 부여했다. 올란드 주민은 이를 거부했으나 국제연맹은 이를 올란드 주민의 스웨덴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려는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보았다(https://en.wikipedia.org/wiki/%C3%851_and_Islands_dispute). 올란드 분쟁은 민주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핀란드의 외교적 승리로 스웨덴은 1930년대까지 이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으로 다른 언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핀란드인’이라는 민족통합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족’통합은 내전 후 다양한 정책에서 추진되었는데 1919년 헌법에서 보장한 핀란드어·스웨덴어 공용정책도 그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상층·엘리트보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신생 핀란드 공화국을 지배하게 된 것도 민족통합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언어 분리는 여전히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였는데 갈수록 핀란드어 사용자들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전문직 엘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나 거리감이 악화될 수 있었다. 순수 핀란드인으로 2대 대통령에 선출된 농민당의 렐란드르(Lauri Kristian Relander, 1883-1942; 1925-31 재임) 대통령은 핀란드어 사용자로 좌파세력에 거부감을 가졌지만 정당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했고 여전히 힘 있는 스웨덴어 세력에도 온건했는데 이는 국가통합을 위해 ‘고난의 길’(Maude, 2010: 68)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독립 후 핀란드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역사적으로 스웨덴계가 장악했던 기업엘리트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신생 독립국인 핀란드가 새로운 공화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본과 지식,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스웨덴은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스웨덴계 기업인들은 이러한 스웨덴의 산업 역량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이들의 경제력과 능력을 제한하기보다 핀란드 기업인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국영기업들에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출신의 핀란드 언어사용자들을 고위경영자로 일하게 했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스웨덴계 기업들과 경쟁도 가능했을 뿐 아니라 핀란드어 근로자들이 고위경영자와 일체감을 갖고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었다. 지방 곳곳에서 운영된 국영기업들에서 핀란드어 경영자들은 핀란드의 민족주의와 국가통합 의지를 확산시켰는데 이들 ‘애국적 경영자들(patriotic managers)’은 독립 후 전간기의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icheisen and Kuisma, 1992: 351).³²⁾ 1930년

32) 이들 중에는 백위군 출신도 많았지만 핀란드 민족주의, 핀란드 국민주의를

대의 경제적 황금기('the golden decade')로 핀란드는 현대산업국가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치는 물론 경제영역에서 '두 민족'은 하나의 '핀란드민족'으로 공존하면서 통합되었다. '핀란드민족'은 더 이상 언어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정치적으로는 물론 문화적 차원의 '국민만들기'로 핀란드의 '국민주의'를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핀란드에서도 1920년대 후반 들어 민족주의 노동세력과 파시스트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사회개혁과 민주주의, 1930년 공산당 불법화(1944년 합법화함), 193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재건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Berg-Schlosser and Mitchell, 2000). 1920, 30년대 핀란드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리는 1939년 '겨울전쟁'과 1941-44년 '계속전쟁'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핀란드민족'으로 '하나의 국민'이 되어 싸웠고,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인적 손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낸 핀란드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전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소련의 침략으로 인한 겨울전쟁(1939.11-1940.3)과 계속전쟁(1941-44)에서 핀란드는 영토의 상실에도 독립을 지켰다. 이 두 전쟁은 핀란드인들의 강력한 민족주의 의식과 주권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후 핀란드의 중립·평화노선, 시장경제체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정체성과 국가발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겨울전쟁은 강대국 소련의 영토할양 요구를 거부하고 약소국 핀란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과 치른 전쟁으로 소련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³³⁾ 계속전쟁 후 1944년 9월 소련과 평화조약을 맺었다.³⁴⁾

주창하며 핀란드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에 지불한 막대한 배상금을 마련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애국적 경영자들'은 제도화된 특수 집단을 형성하여 200년 이상 지속된 스웨덴식 기업문화를 핀란드 기업문화로 바꾸고 19세기 말부터 설립된 민족주의적 핀란드어 기업인들과 함께 핀란드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33) 소련의 확장전략과 강대국간(독일과 소련) 밀약으로 겨울전쟁이 발발했다. 이로서 1920년 10월 핀란드와 러시아간 체결된 평화조약(The Tartu Treaty), 1932년 체결된 핀란드-소련 불가침조약, 국제연맹(LN)의 이상적 다자안보구상은 한순간에 무력화됐다.

34) 두 차례의 전쟁으로 9만여 명 사망자, 6만여 명 중상자, 5만여 명 전쟁고

2차 세계대전 후 핀-소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47년, 1948년)으로 핀란드는 영토 일부(Carelia) 포기과 NATO 미가입, 소비에트와의 우호관계를 약속했다. 외교 및 대외관계에서는 친소련 중립이었지만³⁵⁾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서구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공산화 대신 ‘핀란드화’로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으로 노르딕 평화와 지역통합(1956년 노르딕협의회 Nordic Council 가입)을 이룰 수 있었다. 스웨덴의 오랜 중립노선과 핀란드의 중립은 올란드의 비무장·중립의 국제적 지위 유지에도 기여해 핀란드의 ‘민족통합’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중립주의, 2차 세계대전으로 핀란드와의 공동운명체 의식이 커지면서 올란드는 ‘핀란드 소유의 스웨덴 한 지방’에서 ‘핀란드의 자치 지역으로’ 올란드인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Diggelmann, 2007; Hannikainen and Horn, 1997). 이들은 정치적으로 ‘스웨덴인당’을 통해 민주적으로 대표될 수 있었고 합의제 정치와 연정참여로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핀란드는 중립국의 위치를 활용하여 유럽의 동서 양 진영간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핀란드의 중재와 주도로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가 그것이다.³⁶⁾ 핀란드의 울호 케코넨(Urho Kekkonen, 재임 1956-1981, 중도당 소속) 대통령은 이러한 중재 역할과 외교적 지위 강화를 통해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가 발생했고 1944년 평화조약으로 영토의 12%를 포기하고 동부 카렐리아 지역의 영토 상실에 따른 자국 난민 45만여 명을 수용해야 했다. 계속전쟁은 핀란드가 독일의 지원으로 치른 전쟁으로 소련에 8년 동안(1945-1952) 지불한 \$570,000,000의 전쟁배상금은 당시 핀란드의 경제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30년대의 경제성장과 ‘애국적 경영자들’의 적극적 역할로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한다.

- 35)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도 1961년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가입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소비에트와의 양자 무역협정은 핀란드 경제에 큰 이익이 되었으나 1991년 소련 해체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 36) 유럽국가 33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참석한 35개국의 지역포럼으로 ‘헬싱키최종정서’라고 불리는 문건을 채택하였다. ‘헬싱키최종정서’는 안보, 인권, 그리고 경제 및 과학 분야의 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3 '정치계획'과 계급통합: 사회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

핀란드는 내전 직후 대규모의 토지개혁과 중요한 사회개혁으로 전간기에 사회적 국민국가의 토대를 구축했고 2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평등과 평화, 계급통합을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게 되었다. 내전 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력과 공존으로 민족통합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계급 및 언어분리가 지속되었다. 내전과 이에 따른 사회적 긴장으로 노동, 지주, 자본 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결과 전간기 핀란드는 계급적으로, 언어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기 때문이다(Alestalo 1986). 핀란드 사회는 여전히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레크리에이션활동, 사회단체, 교육 및 문화 등에서 계급적으로, 언어적으로 배타적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리는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두 번의 전쟁으로 국가적 존망과 국민적 단합의 분위기에 약화되었지만 1970년대까지 남아있었다(Blom et. al. 1992).

계급격차는 토지개혁 등으로 완화되었는데 특히 1차 대전 후 유럽의 재건과 러시아 부르주아 몰락으로 핀란드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재기하면서 근로자들의 상황도 나아졌다. 발터 샤이델(Scheidel, 2017: 136, 139, 153)에 따르면 핀란드의 계급불평등은 내전과 전쟁으로 크게 감소했고 토지개혁으로 더 큰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 평등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과 삶의 질은 정치적,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이다. 지방과 농촌을 중시한 정책 덕분에 수출과 높은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는 지역적으로, 계급적으로 분산되어 전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합의정치와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사회개혁이 추진되었다. 교육개혁과 문화정책으로 시민적 각성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의 토대를 마련했고 모두에게 적정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계급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지만 축적된 자본의 부족과 전쟁 직후의 정치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소련과의 두 차례 전쟁, 막대한 전쟁배상금과 난민수용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국민소득과 작은 경제규모로 선진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1960년대에 복지제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1960년대 중도-좌파가 집권한 후 본격적인 복유형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어 급여 수준은 다소 낮았지만 스웨덴과 유사한 보편적, 포괄적 복지제도가 구축되었다(김인춘, 2016b). 1968년 노사정 협약으로 소득정책이 도입되고 사회 코포라티즘의 제도화가 구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었다(Alaja, 2012: 9).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복지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내전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였던 국민적 통합을 위한 것이었다. 모든 핀란드인의 평등한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적 열망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핀란드 정치는 이러한 ‘민족’통합과 계급통합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공통의 ‘정치계획’을 통해 실현했던 것이다.

1980년대에도 복지는 크게 확대되어 포괄성 측면에서 다른 노르딕 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급여 수준 또한 높아졌다. 1945-1960년대의 좌파 전성기를 거쳐 1970년대 이후에는 이념적으로 중도파가 중요해졌다. 1970년대의 대외적 국가위상 강화,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의 발전, 합의정치와 사회코포라티즘의 제도화 등으로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 별 어려움 없이 국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속적인 분배정책으로 하층계급이 없고 경제적 결핍이 거의 없는 매우 평등한 사회가 되면서(Blom et. al. 1992; Jäntti, Saari and Vartiainen 2005) 1980년대 말 홀케리(Harri Holkeri) 총리는 ‘모든 핀란드인은 하나의 중산층(middle class)이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Melin, 2014에서 재인용).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핀란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곧바로 회복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고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EU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한 핀란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고 최근까지 경제침체를 겪어왔다(김인춘 2016b). 1991년 이후 역대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해왔으며 최근에는 반유럽 극우정당인 ‘진실한 핀란드인당’(Perus)의 약진과 보수-자유주의

중도우파 정당들이 선전하고 있다. 중도당(과거 농민당)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제1당을 차지했고 2015년 또다시 제1당이 되었다. 2015년 5월 출범한 중도우파 다수연정(중도당, 진실한 핀란드인, 국민연합당)의 시필레(Juha Sipilä) 정부는 핀란드의 복지국가를 급진적으로 개혁하고자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중에 있다.³⁷⁾

핀란드 템페레대학 멜린(Harri Melin) 교수에 의하면 핀란드의 사회적 불평등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빈곤과 계급사회라 할 조건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Melin, 2014). 2008년 이후 저성장과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대한 복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격차는 커지고 있다(Pelkonen 2008). 다만, 사회계급과 계급정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졌는데 같은 사회계급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정당들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중하소득자들 중 많은 사람이 정치적 우파인 기독교민주당이나 스웨덴인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당은 계급정당이 자유주의적인 언어정당이고 기독교민주당은 종교적 이유로 지지하는 것이다. 반이민과 복지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극우파인 진실한 핀란드인당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고 있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세계화 시대 불평등의 심화와 이민자의 증가로 유권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여전히 소득평등 수준이 높고 2016년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재 핀란드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들은 적지 않다.

6. 결론 및 함의: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통합의 힘

핀란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시기, 매우 극적인 고난의 역사적 경로를 경험했다. 분리·독립의 와중에 20세기 초 대중민주주의의 부상, 대

37)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시필레 당수는 2012년 6월 전 총리인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의 뒤를 이어 중도당 당수로 선출되었다.

표성 위기와 헌정 위기로 폭력적 계급투쟁과 권력투쟁의 내전이 초래되었다. 1918년 내전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실패, 즉 정치적 구성의 실패와 공통의 ‘정치계획(political project)’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내전 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계획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개혁을 지속했으며 1970년대 이후 대내외적으로 강소국 핀란드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도주의, 대외적 중립주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의 통합의 힘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전후 핀란드 사회와 정치는 타협과 합의, 진보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식민지배, 독립, 혁명, 내전, 전쟁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옴으로서 스스로는 물론 노르딕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 이러한 핀란드의 20세기 역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핀란드와 유사하게 우리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식민, 해방, 이념 및 사회 갈등, 정치적 적대, 분단, 전쟁(내전), 혁명 등 대립과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그러나 핀란드와 달리 1950년대 이후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와 함께 하지 못했고, 민주화 30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념 및 사회 갈등, 정치적 적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20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개혁은 요원하다. 30년 동안에도 헌법을 비롯하여 개혁 등 공통의 정치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19,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도 사회적인 것의 핵심은 노동과 계급의 문제이며 이를 둘러싼 이념은 전통적인 좌우파 뿐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세력과 포퓰리즘으로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은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단적인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개조하려는, ‘20세기를 규정한 세계 최대의 역사적 사건’(박노자, 2017: 111)이었다. 핀란드는 핀란드대공국으로 볼셰비키 혁명의 강력한 자장 내에서 폭력적인 혁명과 내전을 겪었지만 다른 러시아 제국의 나라들과 달리 유일하게 볼셰비키 혁명 후에도,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스스로

자국의 주권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도 독일 제국도 패망하는 '역사적 행운'도 있었지만 내전 후 핀란드 스스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2차 세계대전 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용기와 희생, 전후 '핀란드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들과의 민주·평화연대는 오늘날의 핀란드를 만든 요인이었다.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민주주의와 분배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해 왔다. 사회 위기나 사회적인 것을 구성하는데 정치적 역량이 필수적이고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20세기 초와 21세기 초의 상황은 유사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경제위기로 복지 축소와 재분배 당위성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독립 100주년을 맞은 핀란드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적인 것'과 대표성의 문제, 즉 민주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의 폐허와 약소국으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많은 순위들이 보여주듯이 높은 삶의 질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었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작은 단위(국가, 지방, 마을 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문제는 강'소국' 핀란드가 최근 나타나는 신냉전과 안보의 제약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경제·사회적으로 긴축과 '내적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 문제는 핀란드의 보편적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또는 유로존 탈퇴가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재 실험 중인 핀란드의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구성원, 즉 스스로 각성한 주체적인 시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과거 '약소국' 핀란드의 시민들이 발전시키고 지켜온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그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구. 2016. “준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2016.10.14. (사단법인)민주주의학술연구원 발표자료.
- 김성윤. 2017. 『사회적인 것’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인춘. 2014.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의 성립과 해체”,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분리통합연구회 편, 서울: 사회평론
- 2015.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로체제 :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의 경제사회적 결과” 『사회과학연구』 23: 1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6a. “스웨덴 식민주의와 스웨덴-노르웨이연합 (1814-1905)” 『서양사연구』 54집 한국서양사연구회.
- 2016b.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8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김진호. 2006. 『약소국 적응정치론』 한국학술정보
- 박노자. 2017. “100년 후에 되돌아보는 러시아혁명” 『녹색평론』 155호 (2017년 7-8월) 서울: 녹색평론사.
- 박상훈. 2017. 『민주주의의 시간 -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 박상철. 2004. 『스톨리핀과 그의 시대 (1906-1911) - 체제 변혁기의 보수적 개혁』 한국학술정보.
- 백승욱. 2015. “마르크스와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의 기원 밖에 놓인 사회적인 것의 자리” 『한국사회학』 49(5).
- 서동진. 2012. “포스트사회과학: 사회적인 것의 과학, 그 이후?” 『민족문화연구』 57호.
- 오경환. 2014. “대표성의 위기와 민주주의 : 20세기 초 미국, 프랑스, 독일” 『서양사연구』 51집 한국서양사연구회.
-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이강국, 장시복 역). 2006. 『자본의 반격 -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필맥.

조문영, 이승철. 2017. “‘사회’의 위기와 ‘사회적인 것’의 범람: 한국과 중국의 ‘사회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소고” 『경제와사회』 2017년 봄호 통권 제113호.

조흥식. 2014. “정치계획’으로서의 민족: 우크라이나, 홍콩, 스코틀랜드, 그리고 한반도” <현안과 정책> 제54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하용출, 박정원. 1998. “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전략논총』 제9집

홍태영. 2017. “사회적인 것’의 부침과 민주주의의 동요” 『아세아연구』 제 60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Alaja, Antti. 2012. “Tripartite political exchange and the Finnish social model” in Ville-Pekka Sorsa (ed.) *Rethinking Social Risk in the Nordics*,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Alapuro, Risto. 1988. *State and revolution in Finl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lestalo, Matti. 1986. *Structural change, classes, and the state: Finland in a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Group for Comparative Sociology, University of Helsinki.

Barros, James. 1968. *The land Islands Question: Its Settlement by the Leagu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Barton, H. Arnold. 2006. “Finland and Norway, 1808-1917 - A comparative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Vol.31, Issue 3-4.

Berg-Schlosser, D. and J. Mitchell (eds.). 2000. *The Conditions of Democracy in Europe 1919-39: Systematic Case Studies*, Macmillan.

Blom, Raimo, Markku Kivinen, Harri Melin, Liisa Rantalaiho. 1992. *A Scope Logic Approach to Class Analysis: A Study of the Finnish Class Structure*, Avebury.

Christie, Kenneth and Robert Cribb. 2002. *Historical Injustice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Eastern Asia and Northern Europe: Ghosts at the Table of*

- Democracy*, London: Routledge.
- Coleman, Michael C.. 2010. “‘You Might All Be Speaking Swedish Today’: language change in 19th century Finland and Ireland”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Vol. 35, Issue 1.
- Connolly, Christopher K.. 2013. “Independence in Europe: Secession, Sovereignty and the European Union”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24.
- Diggelmann, Oliver. 2007. “The Åland Case and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1.
- Dutton, Edward et. al.. 2016. “The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of Finland’s Swedish-speaking Minor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97.
- Eley, Geoff. 2002. *Forging Democracy -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Gotz, Norbert and Carl Marklund. 2014. *The Paradox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Nordic Cultures of Consensus*, Leiden: Brill.
- Haapala, Pertti. 2014. “The Expected and Non-expected Roots of Chaos: Preconditions of the Finnish Civil War” in Tepora, Tuomas and Aapo Roselius (eds.) 2014. *Finnish Civil War 1918, History, Memory, Legacy*. Leiden: Brill
- Haarmann, Harald. 2016. *Modern Finland: Portrait of a Flourishing Society*, McFarland & Company.
- Hannikainen, Lauri and Frank Horn (eds.). 1997. *Autonomy and Demilitarisa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land Islands in a Changing Europe*, Leiden: Brill.
- Hilson, Mary. 2008. *The Nordic Model: Scandinavia since 1945*, Beaktion Books.
- Hodgson, John H. 1967 *Communism in Finland; a History and Interpre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ännti, Markus, Juho Saari and Juhana Vartiainen. 2005. *Growth and Equity in Finland*, Washington DC: World Bank.
- Jensen-Eriksen, Niklas. 2015. "Business, Economic Nationalism and Finnish Foreign Trade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Revue Francaise d'Histoire Economique-The French Economic History Review* vol. 1, no. 3: 40-57.
- Jörgensen, Hans. 2006. "The Inter-War Land Reforms in Estonia, Finland and Bulgaria: A Comparative Study" *Scandinav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ume 54, Issue 1.
- Karsh, Efraim. 2012. *Neutrality and Small States*, London: Routledge.
- Kirby, D.G.. 1979. *Finland in the Twentieth Century: A History and an Interpre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irby, D.G. (ed.). 1975. *Finland and Russia, 1808-1920, From autonomy to independence: A Selection of Documents*, Macmillan
- Kissane, Bill (ed.). 2015. *After Civil War: Division, Reconstruction, and Reconciliation in Contemporary Europ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ujala, Antti. 2013. "Finland in 1905: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revolution" in Anthony J. Heywood and Jonathan D. Smele (eds.)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 Centenary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Lockwood, David. 2009. *Cronies or Capitalists?: the Russian Bourgeoisie and the Bourgeois Revolution from 1850-19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ude, George. 2010. *Aspects of the Governing of the Finns*,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 Melin, Harri. 2014. "Economic crisis highlighted class divisions" Feb. 28, 2014 University of Tampere.
- Michelsen, Karl-Erik and Markku Kuisma. 1992. "Nationalism and Industrial

- Development in Finland”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Second Series, Vol. 21, The Business History Conference.
- Pekonen, Onni. 2017. “Parliamentarizing the Estate Diet - The debate on plenum plenorum in late 19th century Finland”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Vol. 42, Issue 3.
- Peltonen, Matti, Markku Lonkila, Anna-Maija Castrén (eds.). 2004. *Between Sociology and History: Essays on Microhistory, Collective Action, and Nation-building*, SKS/Finnish Literature Society.
- Rintala, Marvin. 1969. *Four Finns: Political Profi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hlberg, Pasi. 2011. *Finnish Lessons: What Can the World Learn from Educational Change in Finland?*, Teachers College Press.
- Scheidel, Walter. 2017. *The Great Leveler: Violence and the History of Inequality from the Stone Age to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ppo Zetterberg et al. 2008. *A Small Giant of the Finnish History* WSOJ
- Solsten, Eric. 2013. *Finland: A Country Stud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Spencer, Arthur. 1953. “Finland Maintains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31, No. 2, Jan., 1953.
- Suodenjoki, Sami. 2015. “Promoting land reform from below: Land redistribution rumours in Finland, c. 1880-1905” paper presented at Rural History Conference 2015, Girona.
- Tepora, Tuomas and Aapo Roselius (eds.) 2014. *Finnish Civil War 1918, History, Memory, Legacy*. Leiden: Brill
- Thaden, Edward C.(ed.). 1981. *Russification in the Baltic Provinces and Finland, 1855-19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pton, Anthony F.. 1980. *The Finnish Revolution, 1917-1918*,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bstract>

Finland's social divisions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20th century: democratic construc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project'

Kim, Inchoon*

This paper examines Finland's social divisions and political integration mainly focusing o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n this period Finland experienced dramatic historical path of independence, revolution, civil war, democratic development and welfare state. This paper examines how Finland responded to 'the social', how it was able to overcome language and class division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Finnish civil war of 1918. To this end it analyses 'the social', democracy and the 'political project' and social integr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through what ideologies, institutions and strategies. The main components of the 'political project' after the Finnish civil war were as follows. First, democracy and neutrality along with the capitalist system contributed to normative power and stability and this helped to overcome social divisions and conflicts and achieve 'national' integration. The second is that social reform and universal welfare state contributed to class compromise and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성명: 김인춘

소속: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E-mail: ickim95@yonsei.ac.kr

논문 접수일: 2017.12.2.

논문심사 완료일: 2017.12.9.

수정원고 접수일: 2017.12.26.

게재 확정일: 2017.12.26.

social integration by weakening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early 20th century, at the time when ideology, class and language conflicts were serious, Finland's rapid democratization was very vulnerable in line with the pursuit of complete sovereignty as a new independent state. But Finland's democracy continued and underwent the civil war and WW II. Today's neoliberal globalization, as it was i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has diminished redistribution and deepened social inequality. Discussions of the political and democracy are very important in the midst of the crisis of 'the social'.

Key Words: Finland, the social, democracy, social divisions, Finnish civil war, political project, neutrality